빚으로 버티는 광주·전남 기업들…5년 새 부채 2배 상승

광주·전남 기업부채 52.4조원…2018년 24.6조원 1.88배↑
광주, 광역시 중 최다 증가… '한계기업' 80% 이상은 중소기업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부채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직격탄에 이어 경기둔화로 인해 광주와 전남 기업들의 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기업부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기업부채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업과 부동산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과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 경제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내용은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기업부채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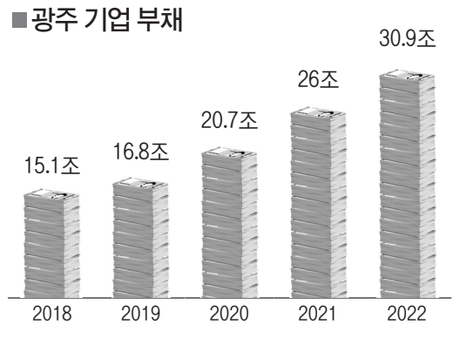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광주와 전남 기업들의 부채는 52.4조원으로 27.8조원이었던 2018년보다 24.6조원(1.8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8년 15.1조원(16.5%↑)→2019년 16.8조원(10.6%↑)→2020년 20.7조원(23.4%↑)→2021년 26조원(25.6%↑)→2022년 30.9조원(18.8%↑)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전력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전남은 2018년 12.7조원(6.7%↑)→2019년 14.9조원(16.7%↑)→2020년 17.7조원(18.9%↑)→2021년 19.8조원(12%)→2022년 21.5조원(8.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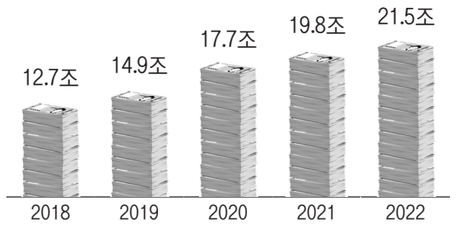
광주와 전남이 5년 간 각각 연평균 18.9%, 12.5%의 기업부채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기업부채율도 상승했다. 광주는 2018년 43.9%였는데 2021년 68.8%로 늘었고 전남은 같은 기간 20%에서 26.3%로 늘었다.

■광주 기업 부채



■전남 기업 부채

〈한국전력 제외, 단위:원〉



특히 광주는 코로나19 이후 기업부채가 가장 큰 폭(84.1%)으로 증가한 광역시였으며 전남은 44.5%로 도지역 중 세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아울러 광주·전남지역 기업부채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광주 중소기업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25.5%로 대기업(13.4%)보다 높았으며, 부채규모도 2022년 말 기준 중소기업 16.2조원, 대기업 14.7조원으로 중소기업이 더 많았다.

전남은 중소기업 부채 증가율 18.5%, 대기업 7.2%였고 부채액은 중소기업 11.7조원, 대기업 9.8조원이었다.

중소기업은 부채증가로 인한 이자부담도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중소기업은 자산 대비 차입금 비중 역시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해 이자부담도 그만큼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어서다.

이는 연체율 중소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 2021년 광주 0.34%, 전남 0.23%에서 2022년 광주 0.35%, 전남 0.23%로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역 기업부채의 특징은 타 지자체와 견줘 건설업과 부동산업, 에너지 관련업종에 집중돼있다는 점이었다. 광주는 전체 기업부채 중 부동산업이 46%, 건설업 20.2% 전남은 에너지 관련 업종 19.8%, 부동산 15.9%, 건설업 14.1%였다.

한국은행은 광주와 전남 미분양주택 증가와 상가 임대가격 하락세로 이 같은 결과나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 전남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마저 약화되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과 기업부채 증가로 이자비용이 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능력이 저하되면서 기업들이 평균 이자보상율도 하락했다.

이로인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중은 2022년 기준 광주 43.2%, 전남 33.4%로 2년 전(광주 38.6%, 전남 31.4%)과 비교해 증가했다.

아울러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의 기업을 뜻하는 '한계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광주 11.9%→19.4%, 전남 11.3%→15.1%로 늘었다.

특히 한계기업의 80%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청년농업인과 브랜드 농산물 신규 품목 발굴 나선다

브랜드 청년농업인 간담회
'상큼애' '오매향' 참여 확대 등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12일 도내 청년농업인을 전남본부로 초청해 '전남 광역농산물 브랜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 광역농산물브랜드 '상큼애'와 '오매향'의 청년농업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품목 발굴과 마케팅방안 등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전남농협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남농협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청년농업인 특판전에 대한 결과를 청년농업인과 공유하고, 농업현안과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탁 본부장은 "현재 농촌은 고령화, 청년유입 감소 등으로 인해 농촌 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미래기반인 청년농업인들이 조기 경영안정을 이뤄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전남농협은 농산물 판매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탁(왼쪽 여섯번째) 전남농협 본부장과 청년농업인들이 '전남 광역농산물브랜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한편 전남농협은 전라남도,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교육 확대,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력공단, 광산기업주치의센터와 중기 컨설팅 협약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허서혁)는 최근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센터장 기회봉)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인력공단 광주본부와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 컨설팅 제공 및 인적 네트워킹 교류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등에 협력키로 했다.

허서혁 본부장은 "광주지역 관내 주요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기술, 금융, 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대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와 협력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사회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공단의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처방해 근로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광주지역 4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비대면 채널 '또 만나요!'

12월31일까지 쿠폰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또만나요! (CU Again~)'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2000계좌에 CU편의점 쿠폰 5000원권을 지급한다. 쿠폰은 상품별 1매, 개인당 최대 6매다.

참여 대상은 지난 5월 22일 기준 이벤트 상품 미보유 고객 중 이벤트 기간 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벤트 상품에 신규 가입 시 쿠폰을 지급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펀드(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개인IRP(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외화적금(정액식, 6개월 이상, 100달러 이상) ▲외화예금(6개월 이상, 1000달러 이상) ▲일임형ISA(가입금액 10만원 이상)이 있다.

또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된 신용카드 보유 고객 중 일정 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 없고, 이벤트 기간 내 1만원 이상 사용시 쿠폰을 지급한다.

경품은 이벤트 기간 내 응모하고 전월(1일~말일)동안 이벤트 조건을 충족 시, 다음달 10일에 휴대폰번호로 발송한다.

응모는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APP)에서만 가능하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APP),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9.35 (-11.81)
↑	코스닥	885.76 (+2.05)
↓	금리 (국고채 3년)	3.493 (-0.013)
↓	환율 (USD)	1288.30 (-3.20)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궁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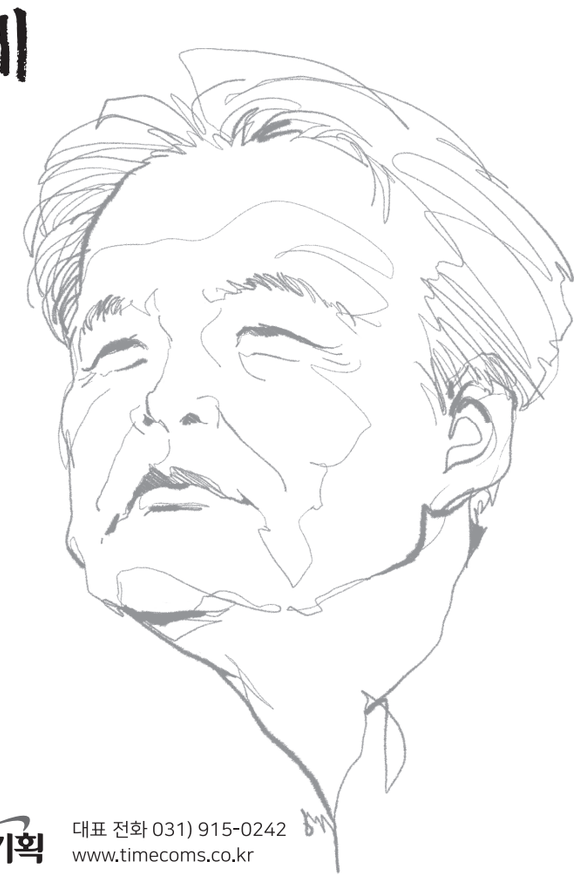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